선내 폐유 처리 후 출발…내달 4일께 목포신항 거치

세월호 이송·거치 어떻게

와이어 제거 마무리…선체 고정하고 반잠수선 날개탑 제거

목포신항 거치까지 5일 소요 예상…오늘 4대 종교 추모식

세월호가 배수, 방제 작업을 마친 뒤 30일 전후 목포신항으로 출발한다. 목포 신항까지 항해거리는 105㎞, 8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다. 목포신항 입항은 이달 31일, 부두에 거치되는 시점은 다음달 4일께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세월호는 선체 안에 있는 해수 배출 등의 준비 작업을 마친 뒤 30일 전후 목포신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0시 반잠수식 선박이 완전히 부양함에 따라 세월호는 ▲선체 내 유성혼합물(해수·폐유) 배수 ▲리프팅빔에 연결돼있던 와이어(인양줄) 제거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 고정 ▲반잠수식 선박 선미측 날개탑(부력탱크) 제거(6개 중 4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반잠수식 선박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선체 내 유성혼합물은 창문 등 개구부를 통해 상당 부분 배출됐다. 이날 현재는 배출되는 유성혼합물 양이 작아 반잠수식 선박의 갑판에서 전량 회수되는 상태이다. 애초 해수부는 개구부가 없이 밀폐돼있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선체 하부에 배수 구멍을 뚫을 계획이었으나, 이 작업을 세월호를 목포신항에 접안·거치한 뒤 실시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해수부는 그러나 평형수 탱크 등 선체 일부에 구멍을 추가로 뚫어 28일까지 평형수를 빼낸다고 밝혀 일정 부분 논란을 예고했다.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평형수 부족이 침몰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전날 오후부터 진행된 와이어 제거 작업을 이날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66개 와이어 중 40개를 제거했다.

목포신항으로 이동 중에 세월호가 움직이지 않도록 반잠수식 선박과 선체를 고정하는 작업도 이날 시작됐으며 28일 마무리 예정이다.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 제거는 29~30일께 진행한다.

인양업체 상이이샐비지는 반잠수식 선박이 원활하게 바다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선미 측에 날개탑 4개를 추가로 설치(2→6개)했는데, 이것이 세월호 선체를 육상으로 운반할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의 진입 경로를 막고 있어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준비 작업이 모두 끝나면 세월호는 30일 전후 목포신항으로 출발해 시속 18㎞로 이동한다. 목포신항까지의 항해 거리는 105㎞, 8시간가량 걸릴 전망이다.

목포신항에 도착하면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고정했던 부분을 분리하고, 모듈 트랜스포터가 위치조정을 통해 선체 밑에 들어가서 세월호를 운반해 부두에 거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인양 공정이 종료된다. 사고 해역을 출발한 세월호가 목포신항 도착 후 거치될때까지 5일가량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4일이면 선체가 목포신항에 거치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를 선적한 반잠수선박 인근 선박에서는 28일 11시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불교 등 4대 교단이 참여해 미수습자 가족을 위로하고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는 종교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미수습자 수색 작업 다음달 10일께 개시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의 미수습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르면 다음달 10일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5~6일께 세월호가 육상에 완전히 거치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10일께에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지만 위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합뉴스

다음달초 침몰 해저 수색

해양수산부는 27일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하이샐비지와 함께 세월호 선체 주변에 설치한 유실방지 사각펜스 내 미수습자 및 유류품 등에 대한 정밀 수색작업을 4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가 침몰된 맹골수도 아래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유실방지 사각펜스를 설치했다. 설치된 펜스를 가로 40m, 세로 20m 크기로 40개의 구역으로 나눈 뒤 샅샅이 수색한다는 방침이다. 수색에 투입된 잠수사의 머리에 HD카메라를 장착해 1m 간격으로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수색으로 찾지 못한 미수습자나 유실물을 수중음파탐지기인 소나(SONAR)를 이용해 찾는 2차 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유출 기름띠 확산…양식장 391ha 피해

기름 유출 긴급 현장조사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띠가 8㎞ 주변 섬으로까지 확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진도군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기름띠로 인한 피해는 27일 현재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5.5㎞ 떨어진 동·서거차도 미역·어패류 양식장 391.2ha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진도군은 이날 오전 이동진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이 조도면 대마도·소마도 일대로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세월호 인양현장에서 약 8㎞ 떨어진 양식장에서 기름 유출 피해를 봤다는 어민 신고가 접수돼 실제 기름 피해가 있는지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실제 기름띠가 확산한 것인지 확인했지만, 섬까지 미친 기름막이 빠르게 증발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름 확산 추이를 관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미 기름띠가 확산한 동거차도와 서거차도에서는 미역·조개류·해삼 등 16개 어가 391.2ha 모두가 기름 유출 피해를 보아 잠정추산 17억892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양업체 상하이 샐비지 측은 이날 손해사정자 관계자를 동거차도에 보내 어민들과 피해보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기름 유출이 확산되자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름 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잔존유 제거 작업 후 목포신항 이동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족들은 "세월호 잔존유를 제거하지 않고 섬과 섬 사이를 지나며 세월호를 이동시키다 기름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미수습자 수습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지만, 어민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잔존유 제거 작업을 후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와이어 제거 27일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인 반잠수식 선박에서 상하이샐비지 작업자들이 세월호에 연결된 78㎜ 리프팅빔의 인양 와이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램프·배기 굴뚝 등 잇단 선체 훼손…진상규명 영향 우려

피해자 가족 반발

세월호 인양이 속도를 내면서 선체 훼손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인양 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사고 원인 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체 인양의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선체 인양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부가 인양을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바닥에 리프팅 빔을 깔고, 이를 와이어로 연결하는 등 인양 과정에서 작업을 방해하는 연돌(배기 굴뚝), 핸드 레일, 부두에서 배에 올라탈 때 쓰는 사다리 등이 정리됐다.

정리한 선체 일부는 목포신항으로 옮겨져 보관 중이다.

인양 이틀째인 23일 세월호 선미 좌측 램프 부분이 잭킹바지선에 걸려 끌어올리지 못하고, 반잠수정 거치도 어렵게 되자 이를 잘라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하게 닫힌 램프를 통해 물이 들어와 침몰이 빨라졌다는 의혹이 일었다.

배의 평형을 유지하는 장치인 좌측 스태빌라이저와 닻(앵커)도 리프팅 빔 설치 등 인양 과정에서 제거됐다.

잠수부가 드나드는 통로 등을 만들기 위해 선체에는 140개가량의 구멍도 뚫렸다.

규정보다 적게 실려 세월호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평형수가 들어있는 밸러스트 탱크도 해수로 가득 찼다며 구멍을 뚫어 배출하기로 했다.

목포신항으로 거치를 완료하고 나서 수색 효율성을 들어 객실 절단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거리가 먼 일부 지장물을 불가피하게 정리하고 목포신항 부두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보안구역이라 일반인 출입도 제한된다"며 "사고 원인을 밝혀낼 핵심 장치인 조타실·타기실·기계실 부분은 사고 당시 모습으로 온전히 인양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국회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당황하고 있다. 세월호 인양 과정을 지도·점검해야 할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인양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28일 선체조사위원 8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활동에 들어가는데는 이후 한달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위원이 선출되면 인사 검증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임명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 조직과 인원은 시행령이 제정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제정하고, 입법예고·법제심사에 10일, 국무회의 의결·관보 게재에 10일이 걸려 빨라야 4월말께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공무원을 파견하고 예비비를 편성·배정하는데 2주일 가량이 소요된다.

선체조사위원으로 추천된 한 위원은 "조사위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세월호 인양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4·16가족협의회는 해수부의 급격한 처리로 선체조사위의 인양 지도·감독과 선체 내 수습·조사에 대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러시아선박 해상 사고 뺑소니

쌍나팔

○…여수 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들이받아 선원 1명을 실종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과 항해사가 쇠고랑 신세.

○…2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러시아 선적 A호(6689t) 선장 K(53)씨와 항해사 D(43)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께 여수 소리도 남동쪽 55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 B호(4.99t·여수선적)를 충돌한 후 우리 선원 C(62)씨가 실종되는 사고를 내고도 달아난 혐의.

○…사고 후 해경은 레이더 영상 등을 바탕으로 사고 지점을 135km 벗어나 영해 밖으로 도주하려던 러시아 선박을 붙잡아 여수항으로 회항시킨 후, 항해사 D씨에게서 "한밤중이라 캄캄해 어선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는 자백을 토대로 구속 수사.

/여수=김창화기자 chkim@

k-land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공매컨설팅 (투자금 100% 책임보장)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대지 500평 최저가 776,000,000
건물 419평 감정가 1,108,000,000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세정아울렛)

전용면적 35평 최저가 721,000,000
최고가 1,610,000,000

동구 충장로5가(업무시설)

대지 400평 최저가 3,304,000,000
건물 329평 최고가 3,406,000,000

담양 담양읍 삼만리 근린시설

대지 1073평 최저가 540,000,000
건물 336평 최고가 1,506,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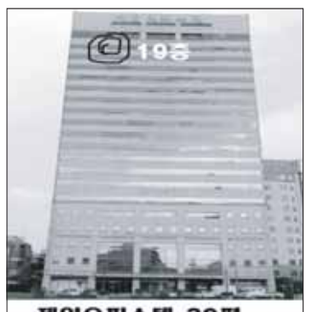
서구 쌍촌동 원룸

토지 86평 최저가 788,000,000
대지 340평 감정가 1,125,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최저가 742,000,000
건물 305평 감정가 1,059,000,000

22평형 6가구 (수익성 아주좋음)
대지 110평 건평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융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평
감정가격 9,000만원
급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00명 모집 광주법원 입구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